

대만 아수스텍 노트북, 작년 세계 톱10 진입

대만 대형 PC업체인 아수스텍컴퓨터가 지난해 65만~70만대의 자가 브랜드 노트북을 출시해 미국 게이 트웨이를 제치고 세계 톱10 노트북 공급업체(벤더)에 진입했다고 대만 디지털타임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아수스텍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65만~70만대의 노트북을 자사 브랜드로 전세계에 공급했는데 이중 유럽이 33만~35만대로 가장 많았다. 유럽에 이어 대만이 12만~13만대, 중국이 8만대, 홍콩이 2만대 등을 차지했다.

반면 IDC자료는 미국 4위 PC업체 게이트웨이 가 작년 1분기에 11만 1,000대를 비롯해 2분기 12만9,000대, 3분기 15만5,000대를 각각 출하, 4분기(비공식 통계)에 20만대에 못미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3년내 2배 성장”

평판TV 및 모니터 판매 증가에 힘입어 앞으로 3년 동안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93억달러에 이를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C넷은 시장조사기관 i서플라이·스탠포드리서치의 조사를 인용, TV·PC 모니터·휴대폰 액정화면용 반도체 매출 규모가 올해 47억달러에 이르며 2007년에는 올해의 2배로 커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i서플라이·스탠포드리서치는 PDP 및 LCD TV와 PC용 평판 모니터의 판매 호조가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매출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델·게이트웨이·HP 등의 주요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속속 TV 시장에 뛰어드는 등 디지털

TV 및 홈네트워크시장 개화를 앞두고 평판TV 시장이 가열되고 있다. 또 일반 CRT 모니터의 출하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LCD 모니터의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화면에 영상 신호를 뿌려주는 LCD구동IC(LDI) 수요가 디스플레이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i서플라이·스탠포드리서치의 데이빗 멘틀리 애널리스트는 “올 한해에만 PC 관련 시장에서 17억대, 휴대폰 화면용으로 6억1,000만대의 LDI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회사는 최근 올해 세계 LCD 패널 매출이 작년보다 32% 늘어난 47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마쓰시타, 옥시라이트 건전지 출시

마쓰시타전기산업은 기존의 알카리 건전지와 비교해 출력이 높고 약 1.5배 오래가는 ‘옥시라이트 건전지’를 오는 4월 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오는 옥시라이트 건전지는 일본에서 알카리 건전지가 출시된 지난 1964년 이래 40년 만의 신모델이라고 이 회사는 덧붙였다. 희망소매가는 1팩(2개) 360엔으로 알카리 건전지보다 40엔 비싸다.

소니, 일본 LCD패널 국가 프로젝트 전격 탈퇴

소니가 일본의 액정표시소자(LCD) 패널 국가 프로젝트에서 중도 하차했다.

소니는 일 정부와 샤프, 히타치

등 LCD업체들이 주도해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해온 ‘차세대 액정 패널 개발 프로젝트’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고 니혼게이지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소니의 이번 탈퇴는 지난 해 가을 삼성전자와 LCD 패널 분야에서의 공동 생산에 합의한 이래 오는 4월 합작사 설립을 눈 앞에 둔 상황에서 터진 일어서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소니의 탈퇴에 대해 일본산 LCD 개발·생산을 표방해온 국가 사업의 취지와 이에 따른 자격 문제, 삼성과의 제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소니 측 이해 등이 부딪힌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니혼게이지는 경산성이 삼성과 소니가 협상을 시작한 단계에서부터 ‘기술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휴에 못마땅한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영국 ARM, 코어 성능 대폭 향상

세계 1위 반도체 설계업체인 영국 ARM이 기존의 16~32비트 ARM7TDMI 코어보다 성능을 크게 개량한 ARM7 코어를 개발했다고 실리콘스트래티지스가 28일 보도했다.

ARM사는 새로운 ARM7 코어가 현재 판매 중인 16, 32비트 겸용 ARM7TDMI 코어보다 전자회로의 설계가 용이해 세계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시장의 주력제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RM사는 또 시장에서 수요 감소세를 보이는 구형 4~8비트 코어제품을 연말까지 단종시킬 계획인데 이번 ARM7 코어 출시도 MCU수요를 16~32비트 위주로 업그레이드하

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 전자업계, ‘그린 조달 체제’ 구축 나서

일본 전자업체들이 친환경적인 부품 구매를 위해 부품업체에게 납·수은 등 유해 물질의 사용 상황을 알리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자율 규제하는 이른바 ‘그린 조달 체제’ 구축에 나선다.

6일 니혼게이지신문은 소니, 캐논, NEC 등 3사는 부품 구매시 규제 물질, 측정 방법, 함유량 등의 공통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준안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EU가 전기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난연수지 등 6개 품목을 포함해 총 29개 종류다. 이 기준안은 각 부품업체가 소재에서부터 전자부품, 완제품까지의 각 단계에서 조달처로부터 대상 물질의 함유 정보를 입수해 공통 항목에 따라 화학물 함유량을 표시하고 이를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해 화학물의 사용을 폐지할 경우에는 대응 완료 선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3사는 향후 경제산업성의 지원을 받아 부품업체 및 화학업계 등에 이 기준안을 활용토록 하고 산업계 전반의 자발적인 규범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3사의 기준안 마련은 EU가 오는 2006년 7월부터 모든 전자제품에 납 등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키로 한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EU 규제 대책에 대한 일본기업의 대응으로는 소니가 지난해 3월까지 해외를 포함한 조달처 4,200개사를 방문 조사한 바 있으며

캐논 역시 올해 안에 3,000개사를 방문해 화학물질의 대체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3사는 그러나 각사의 대응이 부품 및 소재업체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업계 전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일본 정부는 환경을 배려한 전체적인 조달 구조에 대해 경산성이 각 산업계의 의견을 조정해 후 일본공업규격(JIS)으로 최종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업계 “유기EL로 자존심 회복”

‘차세대 액정 시대의 문은 우리가 연다.’

액정(LC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에 1위 자리를 내준 일본 디스플레이업체가 차세대 모델인 ‘유기EL’로 자존심 회복을 노리고 있다.

일본업체가 아직은 미완의 대기로 불리는 유기EL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양산화 기술이 관건인 이 시장 뿐만 아니라 향후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 변화까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니혼게이지는 15일 동북파이오니아, 산요전기, 소니 등 일본 관련업체가 오는 2007년 유기EL 세계시장 점유율 20%를 목표로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 업체는 LCD보다 밝고 가볍다는 장점을 가진 중소형 화면용 유기EL의 특성을 살려 휴대폰 등에 들어가는 제품 생산에 집중한다는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세계 출하액이 약 300억엔에 그친 중소형 유기EL 시장이 오는 2007년 무렵 3,000억엔대로 성장할 것이라 분석에 따른 것이다.

세계 최초로 유기EL 양산화에 성공한 바 있는 동북파이오니아는 99년 개발한 패시브형 모델에 이어 지난해부터 휴대폰용 풀 컬러 제품을 선보였다. 지난해 10월 현재 누계 1,000만장을 돌파한 상태며 올해부터는 양산 규모를 확대한다.

산요전기도 미국 이스트만코닥과 공동으로 설립한 ‘에스케이디스플레이’에서 지난해 3월부터 ‘액티브형’ 모델을 생산하기 시작, 코닥이 생산하는 디지털카메라용 디스플레이용으로 납품하고 있다.

후발 주자인 소니는 올 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지난해 90억엔을 들여 도요타유기와 공동 설립한 자회사에서 월 30만장(2인치 환산)을 생산, 자사 휴대폰 등에 장착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시바와 마쓰시타전기의 합작사인 ‘도시바마쓰시타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도 올해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

유기EL은 미세한 화소 자체가 발광해 화면에 표시되는 방식으로 LCD보다 훨씬 선명한데 특히 디스플레이 배후의 형광등(백라이트)이 필요없어 측면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즐길 수 있다.

단지 지금까지 생산되고 있는 유기EL 제품의 수명이 6,000~1만 시간에 불과해 6만 시간에 달하는 LCD 수명보다 크게 뒤지는 것이 흠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 업체는 시장이 형성되는 2007년 무렵까지는 중소형에 집중하고 향후 TV용 대형 제품도 양산할 계획이다.

중국 ‘가전 리사이클링’제 시행

중국이 기업에 사용이 끝난 전자

제품의 회수 비용을 부담시키는 '가전 리사이클링 제도'를 조만간 시행한다.

중국은 산동성과 저장성 등 2개 성을 모델로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PC 등 5개 품목에 대한 가전 리사이클링제를 연초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아이신문이 25일 상하이발로 보도했다.

칭다오(靑島)시 정부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개 지역을 시험 대상으로 가전제품의 회수 비용을 업체에 별도 부담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자국 및 해외 기업들은 제품 가격에 회수부담금을 포함시켜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가전 리사이클링제 대상으로 선정된 5개 품목은 주로 한국, 일본의 업체들이 중국에서 생산·판매하고 있어 업체 부담이 커지면서 원가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 정부는 2개 성에서 이 제도가 정착돼 제품 회수가 순조로울 경우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본업체들은 "이미 중국에서는 업체간 백색가전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여기에 리사이클링 비용까지 없었을 경우 채산성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 반도체시장 '급팽창'

중국의 전자제품시장이 오는 2007년 총 2,700억달러로 성장하고 반도체 시장규모도 85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실리콘스트래티지스가 시장조사기관 아이서플라이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전자제품시장은 2002~2007년까지 연평균 13.5%, 반도체시장은 22.2%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 반도체시장의 이같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업체들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단기간내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이서플라이는 또 지난해 중국계 반도체업체들의 매출규모가 총 12억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필립스, 비접촉식 카드 결제기능 가전·휴대폰 본격 공급

필립스가 올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업체 비자인터내셔널과 제휴해 비접촉식 카드결제(NFC)기능을 내장한 휴대폰과 가전제품을 본격 공급할 예정이라고 EE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비접촉식(Near Field Communication) 카드결제는 상품 안에 무선칩을 내장한 뒤 사용자가 10cm 거리 이내에 카드리더를 갖다대면 상세한 상품정보가 뜨고 물건 값을 간단히 결제할 수도 있다.

지난주 국제가전쇼(CES)에서 필립스는 자체 개발한 NFC기술(코드명:마이페이)과 비자의 무선결제 인증서비스를 결합한 구매모델을 선보인 가운데 올해 안에 가전제품의 재고관리와 대금결제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예견했다.

필립스 세미컨덕터의 스콧 맥그리거 부사장은 "하반기부터 자사의 휴대폰과 PDA, TV 등 모든 가전제품에 NFC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며 고객은 언제 어디서나 쇼핑결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니도 NTT와 손을 잡고

자체개발한 NFC기술(코드명:펠리카)을 내장한 휴대폰 보급을 추진 중이다.

IBM, 'IT 협업시대' 선언

세계최대 컴퓨터업체인 IBM은 2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사흘간 일정으로 열린 '로터스피어 2004' 행사에서 '로터스 노츠·도미노 6.5.1' IBM 소프트웨어 솔루션 포 온 디맨드 워크플레이스' 같은 신제품과 'IBM 워크플레이스 클라이언트' 등의 신기술을 발표했다.

'로터스 노츠·도미노 6.5.1'은 메시징 및 협업 플랫폼으로 2003년의 '6.5' 버전에 비해 △임베디드 인스턴트 메시징 추가 △선택적 포털 등 인터페이스 향상 △타 제품과의 통합 능력 강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아웃룩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온디맨드 워크플레이스'는 IBM의 기존 엔터프라이즈 포털인 '웹스피어 포털'과 웹기반 메시징 솔루션인 '로터스 워크플레이스'를 처음으로 통합했다.

IBM측은 이 제품에 대해 "업계 최초로 포털 환경에서 완전한 웹기반의 협업 SW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또 '로터스 워크플레이스' 플랫폼을 위한 풍부한 클라이언트 경험을 제공하면서 유비쿼터스 환경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워크플레이스 클라이언트' 신기술도 소개됐다.

IBM은 또 고객과 협력사(ISV)들에게 협업 기술을 지원하는 이른바 'ISV 어드밴티지'를 통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통합하려는 작업에도 나서서 주목을 받았다.